

# ‘전북 겨루기 태권도’ 발전상 한눈에

태권도진흥재단, 10월 8일까지 국립태권도박물관서 상설 테마전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태권도 겨루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북 겨루기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상설 테마전을 10월 8일까지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전북 겨루기 태권도’는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 전북 지역에서 발전한 태권도 기술 및 수련 체계로서 실전과 가까운 직접 타격 형식의 겨루기를 선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태권도 호구의 형태와 유사한 대나무를 활용한 보호구를 최초로 개발해 경기에서 사용하며 현재 태권도를 견인한 의미로 전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태권도박물관 상설테마전 ‘전북 겨루기 태권도’ 전시장 전경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펼쳐진 최초 국제 무예대회인 ‘한·일 친선 공수도 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일본국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등 1940~60년대 사진과 메달, 상장, 경기 규정집, 고단자 발급대상 등의 유물이 선보여진다. 특히 태권도 경기화를 주도한 전북 지도관 고 정일섭(1922~2000) 사범의 도복과 띠 등 전북 태권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전북 겨루기 태권도는 현대 태권도 겨루기 기술 발전과 경기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태권도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갖는다”며 “우리 재단은 태권도 역사적 가치와 보존·전승을 위한 자료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술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태권도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가 시 최초로 파워유튜버를 활용한 전통 옷칠목공예 홍보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남원 옷칠목공예 홍보 영상 ‘호응’

시 최초 파워유튜버 활용 제작... 체험 통한 우수성 소개

남원시가 시 최초로 파워유튜버를 활용한 전통 옷칠목공예 홍보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영상은 남원의 옷칠목공예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으로 K-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내·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영어자막을 함께 연출했으며, 목공예 체험을 통해 남원 옷칠목공예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본 영상은 게시된 지 3주 만에 9,5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남원시는 시의 다양한 전통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목기, 식기, 부채 등의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기자단 등 소셜미디어(SNS)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원시 소중한 전통산업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홍보해 전통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명품 판소리 마당극 ‘슈퍼덕 씨름대회 출전기’

국립전주박물관, 22일 소리꾼 김명자 마당놀이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김구영)은 오는 22일 오후 6시 강당에서 소리꾼 김명자의 마당놀이 ‘슈퍼덕 씨름대회 출전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MBC, KBS, 국악방송 등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하고, 프랑스 축제 초청 및 전국 순회공연 등 1천여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명품 판소리 마당극이다.



에서 선착순 접수하고, 입장인원은 최대 230명이다. 관람료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이에 따르면 서울 한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슈퍼덕이 감자냉장고를 타기 위해 ‘전국 여자 천하장사 씨름대회’에 출전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재미있게 그린 판소리 마당극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민요와 트로트 등을 가미해 함께 따라 부르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공연이 상대적으로 관람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큰 관심을 받는 작품인 만큼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전화예약을 받고 있으며, 전주 시니어 클럽 회원들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관람예약은 12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

## 신나는 예술여행 ‘초대장이 어디있니? 찾아가는 공연’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사)부암뮤직소사이어티는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공연 사업의 일환으로 7월 전라도에서 클래식음악교육극 ‘초대장이 어디있니?’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3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곳에 문화 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 복지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창유가 부족한 특수학교 학생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친숙함을 높이고 연주체험 참여를 통해 클래식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클래식 선율 안에 스토리를 풀어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줄 이번 공연은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곡들의 생생한 연주와 함께 연극, 영상 등을 통합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한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공연과 관련한 문의는 (사)부암뮤직소사이어티(02-3216-3968)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익산글로벌문화관, 세계문화체험 ‘와인 앤 데스티니’ 운영

도내 최초 세계문화 전시·체험 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이 미혼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세계문화 체험프로그램 ‘와인 앤 데스티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만 26세부터 38세까지의 미혼 청년 남녀 14명으로 전라북도내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와인 앤 데스티니’ 참여자들은 프랑스 와인 및 유럽의 디지털 문화를 배우고 2인 1조로 베이킹을 직접 체험하는 등 다양한 세계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타로카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기 이해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번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의 청년 남녀 참여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운명같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교감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global.iksan.go.kr) 및 유선(063-859-5385)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